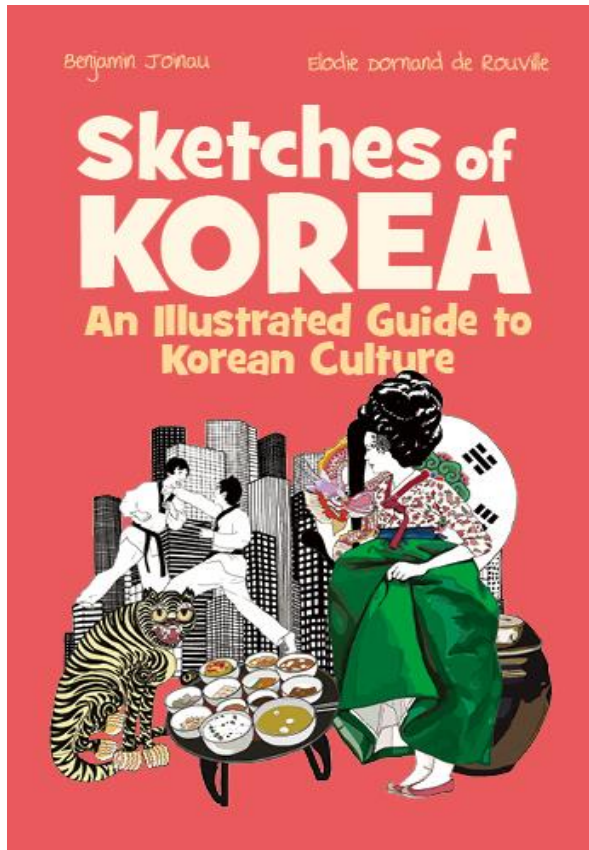


Sketches of Korea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

<스케치즈 오브 코리아: 한국문화 일러스트 가이드북>



저자: 벤자맹 주아노(Benjamin Joinau),

엘로디 도르낭 드 루빌

(Elodie Dornand de Rouville)

출간일: 2015년 4월 27일

면수: 212면

판형: 128X195 mm

가격: 12,900원

출판사: 서울셀렉션(Seoul Selection)

국내 거주 외국인 18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시대
삼성과 K-Pop, 김치와 태권도 외에도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의 문화인류학자와 아티스트가 펴낸 한국문화
가이드북

◆ 때로는 감추고 싶은 한국의 민낯까지 생생하게 파고드는 글과 일러스트

<출간기념 기자회견>

일시: 2015년 5월 6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셀렉션 서점 (종로구 삼청로6(사간동) 출판문화회관 지하 1층)

문의: 070-4060-5154 (출판기획3팀 김유진 팀장)

메트로섹슈얼 꽃미남과 성형미인,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선캠퍼를 쓴 아줌마, 휴대폰 셀카 삼매경에 빠진 고등학생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 지하철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책은 없을까?

한국에 쏟아지는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한국문화 소개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 관한 책들은 '한국'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소재 혹은 한국인 스스로가 바깥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포장되지 않은 한국의 민낯,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오랜 기간 한국에 터를 잡고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탐구해온 두 프랑스인 저자들이《스케치즈 오브 코리아: 한국문화 일러스트 가이드북(원제: Sketches of Korea: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를 내놓았다. 한국의 최신 유행부터 전통문화, 사회적 관습, 예술, 종교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47 가지 주제를 담았다. 제목의 "스케치"는 이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을 있는 그대로 스케치하듯 기록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모든 페이지를 가득 메운 실제 일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 관한 틀에 박힌 소개서 이상을 원하는 외국인 독자들, 그리고 외국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이 궁금한 한국인 독자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문화인류학자와 아티스트, 두 명의 파리지앵이 그려낸 21세기 한국의 풍속화

이 책의 글을 쓴 벤자맹 주아노는 20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독특한 이력을 쌓았다.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인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그는 한국문화에 매료되어 문화인류학자로 변신했고, 한국문학 번역가, 전시 기획자, 음식 칼럼니스트, 한국요리 TV 프로그램 진행자 등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일러스트를 맡은 엘로디 도르낭 드 루빌은 독특한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포착한 회화, 설치미술을 선보여온 아티스트다. 그녀 역시 파리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고 현재는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난감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술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등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들에 봉착하기도 했다. 《스케치즈 오브 코리아》는 이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정한 의미의 실용적인 문화 가이드북이다. 무조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치켜세우지도, 그렇다고 서양중심적 시각으로 폄하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47가지 테마

이 책은 두 사람이 몇 년간 잡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일상에서 출발하여(1-2장), 한국 고유의 예술과 전통생활양식(3-4장)을 거쳐, 그 정신적 뿌리를 짚어볼 수 있는 종교와 신앙에 이르기까지(5장),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47가지 테마를 스케치한다. 일러스트를 맡은 엘로디 씨는 번데기를 먹고, 김치를 담그고, 서예를 배우는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몸소 체험 하면서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다. 덕분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전세 제도, 축의금 문화, 술자리 예절과 같이 실생활에 유용한 팁도 곁들여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관심이 가는 주제 혹은 문득 펼쳤는데 일러스트가 눈길을 끄는 페이지부터 읽어도 좋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독자들을 위해 주요 단어에 한글을 병기하고 부록으로 인덱스를 넣어 활용도를 높였다.

책 출간과 한국생활 10년을 기념한 일러스트展 개최

《스케치즈 오브 코리아》의 출간에 맞춰 엘로디의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Traversée (횡단)>가 오는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태원 백해영 갤러리에서 열린다. 제목처럼 프랑스와 한국을 횡단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의 경험이 표현된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책에 수록된 작품들도 일부 만나볼 수 있다.

오프닝 + 북 사이닝회: 5월 15일 6시부터

paikhy@paikhygallery.com

www.paikhygallery.com

저자 소개

벤자맹 주아노(Benjamin Joinau)

소르본 파리4대학에서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1994년 군 복무차 해외 파견교사로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다. 한국문화에 매료되어 정착을 결심했고, 자연스럽게 문화인류학으로 관심을 옮겨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한국 요리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벤자민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아리랑 TV)의 진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 한국어로도 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여행 안내서《Petit futé Corée》, 서울에 관한 에세이《Séoul, l'invention d'une cité》, 프랑스 요리 문화에 관한《두 남자 프랑스 요리로 말을 걸어오다》, 인간의

얼굴을 철학, 정신분석,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얼굴, 감출 수 없는 내면의 지도》, 그리고 황순원 작품을 번역한《Les descendants de Cain(원작: 카인의 후예》 등이 있다.

엘로디 도르낭 드 루빌(Elodie Dornand de Rouville)

파리고등미술과정(BTS)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파리국립미술학교(DNSAP)에서 회화와 설치미술을 전공했다. 2002년 홍익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코리안아이즈드(Korean-Eyesed)>展에서 선보인 그림들은 한국인의 일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담아내 화제를 모았다. <Laisse-moi là>(2003), <Instant Mirror>(2009), <Cabinet de curiosité>(2010), <The Shadow of a Star>(2014) 등의 개인전과 여러 그룹전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계, 기억, 장소를 탐구하는 실험을 해오고 있다.

목차

Introduction

Social

Ages of Life and Social Stereotypes

Body Language and Salutations

Table Setting and Etiquette

Markets and Street Vendors

Sleeping in Korea

Public Baths

Modern Housing Styles

Wedding and Marriage

Funeral Rituals and Ceremonies

City Signs and Symbols

Everyday Modern Objects

Cultural

Dishes of Korean Cuisine

Pojangmacha and Street Snacks

Kimchi

Jangdokdae

Drinking Culture

Festivals and Holidays

National Symbols

Games

The Korean Alphabet, Hangeul

Royal Shrine Ancestral Ritual

Artistic

Calligraphy

Ceramics

Dances

Colors and Patterns

Musical Instruments

Songs

Scholar and Court Paintings

Folk Paintings

Traditional

Women's Costume

Men's Costume

Men's Hats

Martial Arts

Everyday Objects of the Old Days

House

Gentlemen's Quarter Room

Furniture

Palaces, Fortresses and Gardens

Spiritual

Religions

Shamanism

Divination and Geomancy

Folk Beliefs

Buddhist Temples

Statues of Buddha

Buddha's Birthday

Supernatural Beings

Royal Tombs